

종교정향에 따른 종교인의 유형연구： 천주교인을 중심으로

백승치·김동기

서강대학교·강남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인들이 지향하는 종교정향을 발견하고, 그 정향에 해당하는 집단의 유형에 명칭을 부여하여 그 유형들 간에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인이나 신앙태도들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는데 있다. 피험자는 전체 435명(평신도 220, 수도자 153명, 성직자 62명)이고, 연령은 18세-65세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첫째, 피험자들에게 종교정향척도를 검사하여 종교정향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여 각 요인에 명칭을 붙이고 둘째, 피험자 집단들을 군집분석을 하여 유형화 한뒤 각 요인-유형에 명칭을 붙여 그 유형집단간 변량분석을 하여 차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첫째, 수도자 성직자가 피험자로서 척도에 응답하였기에 요인-유형의 변별이 Batson 연구보다 명백해졌다. 둘째, Batson이 주장하는 종교정향(3개의 정향)을 목적적 수단적 추구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본 연구에서는 더 세분화된 종교정향(6개의 유형)을 찾을 수 있었다. 셋째, 연령과 신앙경력이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인이나 신앙태도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상호작용을 하였다. 넷째, 연령이 가장 민감하게 상호작용적 차이를 미치는 것은 기도순서에 대한 신앙태도였다. 다섯째, 신앙경력이 가장 민감하게 상호작용적 차이를 미치는 것은 귀인에서 합리화와 마술주의였다. 여섯째, 평신도내에서 사도적 활동의 정도는 상호작용적 차이가 없었고, 신앙태도가 상호작용적 차의 의미를 나타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은 결코 타인의 행위나 사회적 현상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능동적 지각자로서, 관찰한 행위의 이면에 있는 규칙까지도 알아내고 싶어한다고 주장한다(Heider, 1958). 이같은 욕구는 종교인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종교인들의 행동이나 종교적 현상은 사회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영역일 것이다. 종교인의 의식이나 행동을 주로 연구하는 종교심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태도나 행동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종교심의 기원, 거짓 종교와 참된 종교의 요소, 종교심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최근 종교심리학의 연구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종교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와 종교적 행동간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대부분이다(Moehle, 1983).

본 연구는 천주교회의 성직자(신부), 수도자(수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종교정향(religious

orientation)을 기초로 종교인들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주제이다. 만일 종교정향을 기초로 하여 종교인들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 그들이 보여주는 종교적 상황내의 신념과 태도의 차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Batson과 Ventis(1982)가 연구개발하여 공식화한 종교정향척도를 이용하여 종교를 지향하는 방식이나 방향을 구분한 뒤, 이들이 종교의 참된 요소와 거짓된 요소-종교를 실존적 문제의 대담으로 보는 종교심과 기복적이고 마술적으로 보는 비합리적인 종교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신앙태도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히려려고 하였다.

참된 종교와 사이비 종교의 논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종교인들의 신념이나 종교심을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종교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적이고 통계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다고 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로마 교황청,

1965)도 인간의 심리, 윤리, 종교상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예리한 판단력으로 미술적인 세계개념과 아직 남아있는 미신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보다 인격적이고 활동적인 신앙을 요구한다고 천명하고 있다(사목현장 7항). 이같은 요구는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구분을 요청하며 종교의 본연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참된 종교심과 거짓된 종교심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될 하나의 시도로 종교정향을 기초로 한 종교인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는 것으로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구분은 심리학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으로 종교의 다양성과 독특성 그리고 복잡성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종교경험을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Batson & Ventis, 19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상이한 학문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경험적 학문과 철학과 신학이 각 학문의 독자성과 한계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호 보완성을 인정한다면 인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신앙인들의 종교정향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종교정향이란 신앙에 대한 방식이나 방향(orientation)을 말하는데, 과연 종교인들의 신앙체험을 두세가지의 정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종교정향의 선구자인 Allport(1967)는 종교적 감정을 인식과 애정의 총체로 보면서 두가지 종교정향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여 종교인들을 구분하였고, Batson과 Ventis(1982)도 내면이나 외면적 정향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제3의 정향이라고 명명한 추구적 정향(quest orientation)을 부가하여 종교인들을 세 부류로 구분하고, 이 세가지 정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교정향 척도를 개발하여 종교정향을 변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석하여 공식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종교의 독특성, 다양성, 복잡성을 감안하고, 더구나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얽고 종교적 의식과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개발한 척도가 얼마만큼 타당도와 변별력을 지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 연구의 목적은 천주교인의 종교정향과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인 및 신앙태도간의 상관성 연구이다.

즉, 바람직하고 성숙한 종교인은 종교적 상황이 결부된 어떤 결과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귀인하는가를 알아보고, 이 결과 어떠한 신앙태도를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예를들면, 사회적 성공과 실패(승진이나 실직)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결과로 보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사회적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소재는 신앙태도 형성에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어떤 종교정향의 종교인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로 돌리고 이에 따른 신앙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고찰하여 신앙인들을 분류함으로써 성숙한 종교인의 특성을 Allport(1937)의 성숙한 성격의 특성에 비추어 추론해 보려고 한다.

참되고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같은 물음은 다분히 철학적인 질문인지는 모르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종교는 개인의 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이요, 태도설정을 위한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Geertz(1975)는 종교의 이차적 심리적 기능은 종교가 구원희망을 촉진하고 많은 대상과 행동에 대해 방향지워진 심리상태, 즉 동기와 태도를 형성해 주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Rosenberg(1956)도 태도는 태도대상에 대한 태도주체의 신념과 태도주체가 지니는 가치관에 기반을 둔다고 하였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 우리의 가치실현을 방해한다고 믿으면 그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변하거나 대상이 가치실현에 공헌한다는 새로운 신념을 얻으면 태도는 변하게 된다. 이같은 태도형성의 원리에 의해 종교는 신앙인 안에 여러 대상과 행동에 대한 태도를 형성해 준다. 따라서 각 종교가 형성해 주는 태도는 다양하고 서로 다를 수 있다. Weber(1922)의 주장에 의하면, Calvin신학은 재산축적을 구원에 밀접히 연관된 것, 즉 구원예정의 표지로 규정한 까닭에 재산축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동기를 형성하지만, 유교나 불교 등 동양종교들은 재산축적을 구원에 있어 해로운 것으로 보았으므로 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동일한 행동에 대해 상반된 느낌을 체험하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충돌과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 동시에 종교와 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종교라도 신봉자의 종교적 투신도에 따라 태도가 변한다는 것이다(오경환, 1979). 이처럼 종교가 신봉자의 태도형성과 종교간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참

되고 성숙한 종교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실한 것이다.

본 연구는 Batson과 Ventis(1982)가 연구개발한 종교정향 척도를 천주교인(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해 봄으로써 척도의 타당도를 우리나라 상황에서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동시에 종교정향의 연구는 성숙한 종교인의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이기예 종교정향에 대한 분석과 문항분석을 통해 종교인들을 종교정향별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교정향에 따라 종교적 현상에 대한 귀인과 신앙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같은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종교정향을 통해 신앙인들의 신앙관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그리스도교적 신앙풍토에서 개발된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봄으로써 문화적, 신앙적 요소를 비교할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비교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의의와 함께 성직자와 평신도의 신앙태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성직자와 평신도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정향척도의 타당성 검증의 문제이다. Batson 등의 연구에서는 종교정향을 세개로 지정하려는 전제하에서 분석을 하였고, 중국에는 신앙적인 복잡한 개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난해한 공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김동기(1991)의 연구에서도 종교적 정향을 매개로 사용하였지만 신앙적 생활과는 관련이 적은 사회적 현상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종교적 정향에 의한 종속변인의 변별과정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신도 뿐만 아니라 성직자, 수도자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척도문항에 대해 다소 차원 높은 종교적 지식, 경험, 신앙적 태도를 표현하게 하여 변별력을 더 높히도록 했다. 그러므로 자료를 왜곡되지 않게 분석하여 개수의 한정을 벗어나서 더 세부적이고 설득력 있는 종교정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김동기(1992)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정향에 따라 연구대상자 집단이 유형들로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

이다. 즉 군집분석(clustering)과 같은 방법으로 종교정향을 기초로 한 종교인 집단의 유형화가 명료화가 하는 점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셋째,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인과 신앙태도를 측정하여 그 응답량에 대한 차이를 정향에 의한 유형요인, 연령요인, 신앙경력요인, 자기지각적 신앙심 요인, 사도적 활동요인 등의 수준에 따른 변량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인 변인에 있어서는, 어떤 성취가 기도에 의한 결과인지 아닌지를 귀인하게 하여 종교적으로 미성숙한 마술주의의 신념정도를 고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일상적인 일을 인과적으로 귀인할 때 성취의 실패나 부진에 대한 귀인의 개념을 확장하여 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실존적 귀인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앙태도 변인에 있어서는 합리화, 미신과 우상숭배, 기복신앙, 교리상의 문제인 기도순서를 다루었다. 합리화란 현실을 왜곡하여 자존심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로 일종의 불합리한 추리이지만, 본 연구에서 합리화란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이나 도우심으로 돌리는 신앙태도를 의미한다. 미신과 우상숭배는 그리스도교 교리의 핵심인 십계명에 위배되는 행위로 미신은 일정한 행위나 의식을 행하면 하느님의 힘을 빌린다는 비합리적이고 무지에서 나온 신앙태도를 의미하고, 우상숭배는 하느님께 드릴 예배를 다른 어떤 대상(현대에서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 탐욕, 명예나 권력의 지나친 욕심도 포함시키)에 바치는 것으로 그릇된 신앙행위의 대상을 말한다. 기복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심으로 자신의 행복이나 기대만을 추구하는 비성숙된 신앙인의 태도를 의미하는 유아기적 신앙태도이다. 기도순서는 교리상의 문제로 먼저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한 다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의기도의 해석의 문제로 천주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의 하나이다. 이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문제, 미신과 우상숭배, 기복과 같은 이탈된 신앙적 행동에 대한 판단 문제, 그리고 교리에 의한 종교적 태도의 일관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종교정향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변별적 성질을 가진 요인들의 추출이 가능할 것이다.

가설 2: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군집분석에서 변별적 성

질의 군집화된 집단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가설 3: 종교적 상황의 귀인이나 신앙태도에 있어서 군집화된 집단과 연령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종교적 상황의 귀인이나 신앙태도에 있어서 군집화된 집단과 신앙경력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가설 5: 종교적 상황의 귀인이나 신앙태도에 있어서 군집화된 집단들과 신앙심 정도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천주교의 서울교구, 춘천교구, 원주교구내에서 거주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로서 평신도(220명)의 연령분포는 18세-63세이고, 수도-성직자(215명)의 연령분포는 22세-65세이다. 평신도 중 남자는 96명, 여자는 124명이며, 수도-성직자 중 수도자는 수녀 153명이고, 성직자는 신부 62명이다. 각 피험자 집단의 평균연령과 피험자수는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전체
평균 연령	39.0	34.9	39.0	37.3
연구 대상수	220	153	62	435

측정도구 및 절차

측정도구로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종교정향척도(9분척, 66문항),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인문항(11분척, 5문항), 신앙태도문항(7분척, 7

표 2.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척도 문항

척도명칭	Allport 척도	Batson 척도	Glock 척도	종교상황귀인	신앙태도
내용	내외정향	내외, 상호작용	정통교리	실존적(2개) 마술주의(2개)	합리화(3개), 미신(1개) 우상(1개), 기복(1개) 기도순서(1개)
문항수	20개	21개	12개	4개	7개
척도분척	9분척	9분척	9분척	11분척	7분척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종교정향척도에는 Allport와 Ross(1967)가 제작한 20항목의 외면적, 내면적 종교정향척도, Baston과 Ventis(1982)가 제작한 종교생활점사인 내적, 외적, 상호작용의 종교정향과 위조항목이 포함된 27개의 척도항목, Glock와 Stark(1966)가 제작한 12항목의 정통교리척도(Doctrinal Orthodoxy Scale)와 이에 첨가된 7개의 위조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요인추출을 위한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변별력을 낮게 하는 정통교리척도는 제외시키고 분석하였다.

종교정향척도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신앙자세에 맞고 생각하는 정도의 점수에 표기하도록 하여 최하 1점에서 최고 9점으로 채점하였다.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인문항들에는 실존적 귀인을 묻는 2개 문항과 마술주의에 대한 귀인을 묻는 2개의 문항들 등이 11분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태도에 대해 알아보는 문항들은 합리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3개이고, 미신 우상 기복 기도순서 등의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이 4개이며 7분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측정척도 문항들을 도표화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Batson 등에 의해 분류한 3개의 종교정향은 '수단적', '목적적', '추구적'이다. '수단적 종교정향'은 종교를 자신의 욕구나 기대를 충족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정향이다. 대표적 문항은 예컨대, "종교는 사교와 안정감에 대한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와 "교회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등이다. '목적적 정향'은 종교가 자신의 생의 목적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해결하려는 정향이다. 대표적 문항은 예컨대, "나의 신앙심은 개인적인 정체감이 확고해짐에 따라 깊어졌다."와 "아주 종종 하느님의 현존이나 신적 존재를 깊이 느낀다." 등이다. '추구적 정향'은 종교가 삶의 의미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고 추구하는 정향이다. 대표적 문항은

예컨대, “하느님이 나에게 중요하게 된 것은 내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부터였다.”와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종교와 관련지으려고 노력한다.” 등이다.

실존적 귀인에 관한 문항은 능력이나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주의적 귀인에 관한 문항은 성취나 기대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기도의 도움인지를 물었다. 신앙태도에 관한 문항은 합리화 문항 3개, 미신 문항 1개, 우상숭배 문항 1개, 기부 문항 1개, 기도순서 문항 1개로서 신앙태도의 정도를 물었다.

이러한 측정도구 제작을 위해서 68명의 수도자와 평신도 80명을 대상으로 각 문항들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고, 종교정향의 연구 전문가 1명과 종교 지도자 3명과

국문학 전공자 1명에게 의뢰하였으며 수정 후 제작했다. 질문지조사는 1994년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통계적 처리는 SAS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군집분석(clustering), 상관관계, F비 등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종교정향척도의 분석

평신도와 수도-성직자간의 종교정향의 차이

표 3은 평신도와 수도-성직자 집단별 각 종교정향척도들의 평균점수와 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간의 평균점수를 비교할 때 평신도가 수도-성직자에 비해 유일하게 높게 나타난 정향은 ‘외면적’ 정향점수로서 ($t=$

표 3. 종교정향척도 점수의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평신도 (n=220)	수도-성직자 (n=215)	t (df=33)
Extrinsic(외면적)	5.43 (1.02)	4.51 (1.03)	9.40***
Intrinsic(내면적)	7.10 (1.09)	7.77 (0.97)	-6.81***
External(외적)	6.24 (1.10)	6.63 (0.99)	-3.90***
Internal(내적)	6.58 (1.06)	7.04 (0.94)	-4.80***
Interactional(상호작용적)	5.64 (1.12)	5.73 (1.13)	-0.84
Orthodoxy(정통교리)	7.63 (1.19)	8.23 (0.96)	-5.80***

** $p < .01$ *** $p < .001$

표 4. 종교정향척도들간의 상관관계(평신도 집단 n=220)

평신도 (n=220)	Intrinsic	External	Internal	Interactional	Orthodoxy
Extrinsic	0.09	0.12	-0.03	0.29	-0.09
Intrinsic		0.40	0.59	0.12	0.65
External			0.34	0.06	0.29
Internal				-0.06	0.61
Interactional					0.06

표 5. 종교정형 척도들간의 상관관계(수도-성직자 n=215)

	Intrinsic	External	Internal	Interactional	Orthodoxy
Extrinsic	-0.13	0.19	-0.20	0.11	-0.21
Intrinsic		0.15	0.62	0.08	0.65
External			0.20	0.06	0.20
Internal				0.01	0.65
Interactional					0.01

표 6. 각 종교정향척도간 상관관계의 집단간 차이(z)

	Intrinsic	External	Internal	Interactional	Orthodoxy
Extrinsic	2.08**	-.67	1.64*	1.79*	1.16
Intrinsic		2.58**	-.44	.39	.00
External			1.43	.00	.91
Internal				-.66	-.62
Interactional					.47

* $p < .05$ ** $p < .01$

9.40, $df=433$, $p < .001$) 이러한 차이는 Batson 등 (1982)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평신도와 수도성직자를 비교해 볼 때, '상호작용' 정향의 점수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김동기(1992)연구와 유사하게 두 집단간 아무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t = -.84$, $df=433$, $p > .05$), 나머지들에서는 수도-성직자 집단이 평신도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atson 등(1982)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데, 이것은 시대적, 문화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두 집단간 종교정향의 차이는 각 집단별로 종교정향척도들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표 4와 표 5 및 이러한 종교정향척도들간의 상관관계의 두 집단간(평신도 집단과 수도-성직자 집단)차이를 제시한 표 6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표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는 평신도와 수도-성직자의 비교에서 전반적으로 수도-성직자들이 평신도들보다 '내면적 혹은 내적'과 '외면적 혹은 외적'을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응답을 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내면적' '외면적'의 상관에 있어서는 평신도는 0.09, 수도-성직자는 -0.13 ($z = 2.08$, $p < .01$), '외면적'과 '내적'에 있어서는 평신도가 -0.03, 수도-성직자가 -0.20 ($z = 1.64$, $p < .05$), 내면적과 외적에서는 평신도가 0.40, 수도-성직자가 0.15 ($z = 2.58$, $p < .01$)로 나타나 수도-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더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어 더 뚜렷한 상관관계의 구별을 해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김동기(1992)의 연구보다 Batson 등(1982)의 연구와 더 일치된다. 이와 같이 정향척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성이 높으면 정향척도점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이나, 피험자 집단을 유형별로 군집화하고자 할 경우에 훨씬 더 명료한 요인별 집단별 구분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종교정향척도의 요인분석

Batson 등(1982)의 연구에서는 종교정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여섯개 부문의 종교정향척도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목적적' '수단적' '추구적' 정향의 세개 종교정향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요인분석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동기(1992)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정통교리' 정향의 척도를 제외하고 요인분석(직교 회전; Varimax)을 해본 결과 13개(고유치 eigenvalue가 1이상)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결과는 김동기 연구의 요인수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정통교리' 정향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높은 점수로 응답할 수 있는 척도로서 이 높은 점수들이 다른 정향 척도점수에 영향을 주어 정향을 구별하는데 변별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Batson 등이 주장하는 3개 방향의 종교정향에도 무관하다고 보아서 제외시켜 분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표로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평신도 집단에서는 1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수도-성직자 집단에서는 13개의 요인이 추출된 것을 보면 앞의 상관성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도-성직자들이 정향들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어 그 요인수가 적게 나타났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종교정향이 몇개의 어떤 요인으로 분석되는가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요인에 속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표 7은 요인 13개가 어떤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고, 표 8은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을 분석, 해석하여 명칭을 부여해 본 것이다. 이 요인들이 의미하는 내용은 전문적 지식이나 안목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변별적 성질을 가진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각 요인은 2~5개의 문항들로 묶여져 있어 공통적 의미를 추출할 수 있지만, 특이한 것은 요인 12가 유일하게 1개의 문항으로 부하되어 있는

표 7. 유형별 요인평균점수(전체 435명)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요인 11	요인 12	요인 13
11	0.70	0.16	-0.05	0.01	0.16	-0.10	0.16	-0.14	-0.03	-0.03	-0.01	-0.11	-0.01
19	0.56	-0.01	0.08	-0.02	0.19	0.32	-0.12	0.25	0.04	0.01	0.03	0.11	-0.01
30	0.43	0.39	-0.04	-0.06	0.13	0.31	-0.22	0.12	-0.09	0.11	-0.01	0.06	0.11
12	-0.49	-0.13	0.11	-0.13	-0.04	0.02	0.45	0.08	-0.06	0.09	-0.08	-0.02	-0.01
53	0.05	0.65	-0.1	0.08	0.23	0.10	-0.04	-0.11	0.06	-0.19	0.20	0.01	-0.02
58	0.12	0.63	0.01	0.15	0.09	0.24	-0.02	0.01	0.06	0.14	0.04	-0.01	-0.04
43	0.40	0.61	-0.05	0.26	0.01	-0.01	-0.01	0.04	0.05	0.04	-0.01	-0.19	0.02
50	0.01	0.45	0.04	0.03	0.18	0.01	-0.05	-0.16	-0.15	0.10	0.11	0.09	-0.37
40	0.40	0.43	-0.09	0.15	-0.09	-0.02	-0.30	-0.02	0.27	0.10	-0.09	0.06	0.05
65	0.01	0.08	0.77	0.01	-0.02	0.05	0.12	-0.02	-0.09	-0.10	0.04	0.08	0.05
18	0.05	-0.01	0.74	0.01	-0.01	0.02	0.10	0.09	-0.12	0.02	0.09	0.20	-0.02
52	-0.25	-0.11	0.58	-0.08	0.07	-0.21	0.02	0.09	-0.01	0.14	0.03	-0.19	-0.03
62	-0.07	-0.32	0.58	-0.03	-0.15	-0.07	-0.04	0.05	0.16	0.11	0.01	-0.30	-0.11
49	-0.06	0.26	-0.06	0.60	-0.01	0.22	-0.03	0.16	0.07	-0.08	-0.22	-0.01	0.01
16	-0.01	0.10	0.16	0.54	0.22	0.02	-0.19	0.03	-0.04	0.20	0.37	0.01	-0.02
37	0.40	0.10	-0.11	0.52	0.13	0.18	-0.04	-0.12	0.01	0.12	-0.07	-0.06	-0.11
5	0.22	0.20	-0.02	0.42	0.40	0.22	-0.14	-0.01	0.11	0.06	0.02	0.20	-0.05
1	0.02	0.08	-0.08	0.16	0.75	-0.01	-0.11	-0.08	0.05	0.06	0.13	0.01	-0.10
9	0.16	0.08	0.13	-0.14	0.64	0.12	0.09	0.13	-0.09	0.05	-0.11	-0.10	0.10
17	0.46	0.19	-0.08	0.17	0.49	-0.01	0.01	-0.08	0.01	-0.13	0.06	-0.13	-0.02
3	0.1	0.21	-0.14	0.27	0.37	0.12	-0.08	-0.20	0.10	0.09	0.11	-0.11	-0.24
36	0.0	0.11	-0.01	0.15	0.11	0.71	0.07	-0.05	0.04	0.02	0.09	-0.02	0.07
33	0.0	0.45	-0.02	0.03	0.05	0.53	-0.13	0.07	-0.01	0.09	0.03	-0.01	-0.02
24	0.1	0.06	-0.08	0.37	-0.08	0.53	-0.03	0.01	-0.01	0.01	0.20	-0.19	-0.01
6	-0.	-0.01	0.21	-0.09	-0.03	-0.10	0.63	0.02	-0.13	-0.02	-0.04	-0.02	0.07
8	0.01	-0.10	-0.14	0.20	0.05	0.17	0.60	0.15	0.18	0.01	0.26	0.01	-0.01
64	0.10	-0.06	0.11	-0.15	-0.10	-0.07	0.60	0.28	-0.05	0.05	-0.18	0.02	-0.02
31	0.10	-0.07	0.01	0.15	-0.01	0.07	0.22	0.73	0.05	0.01	-0.01	-0.03	-0.08
56	-0.1	0.02	0.11	-0.10	-0.02	-0.05	0.09	0.64	-0.12	-0.14	0.08	-0.01	0.03
57	0.0	0.02	-0.03	0.03	0.02	0.10	-0.01	-0.09	0.75	0.03	-0.01	0.17	0.03
46	0.2	0.09	0.01	0.38	-0.11	0.17	-0.03	-0.22	-0.45	0.10	0.19	0.09	-0.15
45	-0.5	-0.21	0.29	-0.16	0.03	0.06	0.18	0.02	-0.54	0.01	-0.17	0.03	0.03
23	-0.6	-0.01	-0.02	0.01	0.02	0.04	0.09	-0.16	0.03	0.73	0.03	-0.11	-0.01
39	0.7	0.28	0.20	0.12	0.11	0.14	-0.04	-0.01	0.01	0.55	-0.03	-0.05	0.16
59	0.9	-0.01	-0.10	0.11	0.02	-0.28	-0.09	0.22	-0.24	0.42	0.34	0.26	0.24
34	-0.11	0.11	0.27	-0.06	0.10	0.25	-0.01	0.00	-0.03	0.01	0.60	-0.11	0.01
26	0.36	0.26	0.09	-0.04	-0.12	0.03	0.04	0.20	0.10	0.01	0.47	-0.22	-0.02
13	0.30	0.02	-0.19	0.15	0.22	0.24	-0.09	-0.17	0.12	0.01	0.35	0.08	0.02
25	-0.08	-0.02	0.06	-0.04	-0.10	-0.10	0.05	-0.02	0.18	-0.12	-0.10	0.74	0.00
29	0.01	-0.05	-0.03	-0.08	-0.00	0.06	-0.00	-0.07	0.00	0.15	0.02	0.06	0.79
42	-0.0	0.14	0.03	0.44	0.12	0.01	0.14	-0.02	0.11	-0.24	0.07	-0.31	0.45

고유치	6.67	2.79	1.88	1.74	1.52	1.41	1.32	1.25	1.19	1.13	1.09	1.04	1.00
전분산	0.16	0.06	0.04	0.04	0.03	0.03	0.03	0.03	0.02	0.02	0.02	0.02	0.02
누 계	0.16	0.22	0.26	0.30	0.33	0.36	0.39	0.42	0.46	0.48	0.50	0.52	0.54

표 8. 요인에 따른 분류 명칭

요인	요 인 명 칭	해당문항수
F1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여 막연히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	4
F2	종교를 자기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	5
F3	신앙이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4
F4	신앙을 지적이고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4
F5	하느님의 외적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4
F6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느끼는 사람	3
F7	종교적 삶과 일상생활의 괴리를 느끼는 사람	3
F8	종교적 생활 사회생활을 타협하는 사람	2
F9	종교는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3
F10	부모의 종교적 영향 아래 성장한 사람	3
F11	종교가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길 바라는 사람	3
F12	고지식한 종교신념의 소유자	1
F13	타인의 종교생활에 좌우되는 사람	2

점이다. 이것으로 Batson 등(1982)이 주장하는, 종교를 '목적적' '수단적' '추구적' 등의 세 정향으로 분류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군집분석을 통한 신앙유형의 구분

피험자가 응답한 각 요인의 부하량과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어느 요인에 어떤 피험자들의 점수가 더 강하게 부하되어 분류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ing)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형별 각 요인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요인들의 구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각 피험자 집단별로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의 수 및 특징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피험자수는 유형 6이 가장 적고, 유형 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과 요인의 짝은 유형 6과 요인 11이다. 또한 유형과 요인간에 가장 짝짓기가 어려운 것은 유형 4로서 요인 2와 요인 9의 성질이 중복되어 요인의 부하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유형-요인간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각 유형에 따른 요인의 명칭과 함께 비교한 것은 표 10과 같다.

표 10은 표 9의 내용을 군집분석한 결과와 관련지어 유형과 요인의 성질을 짝지어서 도표화한 것이다. 요인별로 부하된 평균점수를 검토하여 가장 높은 요인점수와 유형을 짝지웠지만, 실선간 안에서 짝의 아래에 있는 점선부분의 1-2개의 요인들은 그 다음 순으로 높은 요인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확실히 관련되어 있는 요인이라 단정하기가 어렵지만 확률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첨가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 요인들을 Batson(1982)의 주장에 따라 '목적적' '수단적' '추구적'의 정향으로 구분한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같은 성질의 정향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표에서 첫번째 유형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신앙의 외적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뜻대로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들로서 천주교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미사나 전례 그리고 신심생활을 생활화하는 자들이며 신앙의 참 맛을 아는 수도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정통적·보수적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두번째 유형은 신앙이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신앙을 윤리 도덕적

표 9. 유형에 따른 요인별 평균점수

	유형 1 n=42	유형 2 n=113	유형 3 n=67	유형 4 n=49	유형 5 n=143	유형 6 n=21
요인 1	0.172	0.143	-0.013	-0.362	0.280	-2.138
요인 2	-0.005	0.140	-0.289	<u>0.560</u>	0.040	-1.403
요인 3	0.317	<u>0.621</u>	0.195	-0.659	-0.555	0.717
요인 4	-0.101	-0.088	-0.405	-0.853	<u>0.508</u>	0.499
요인 5	0.348	0.228	-0.652	-0.033	0.020	0.097
요인 6	<u>0.739</u>	0.035	-0.710	0.093	0.140	-0.575
요인 7	-0.006	0.053	0.074	0.060	-0.174	0.532
요인 8	-0.072	0.092	0.068	-0.614	0.163	-0.255
요인 9	-1.244	-0.037	-0.010	0.542	0.263	-0.335
요인 10	-0.714	0.473	-0.037	-0.350	0.011	-0.259
요인 11	-0.667	0.279	-0.596	-0.356	0.218	<u>1.081</u>
요인 12	-0.173	-0.262	<u>0.621</u>	-0.693	0.270	-0.445
요인 13	-0.172	-0.224	0.237	0.109	0.141	-0.428

표 10. 유형에 따른 요인별 분류명칭

유형	요인	요 인 명 칭	Batson 정향
1	F6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느끼는 사람	(목적적)
	F5	신앙의 외적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2	F3	신앙이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단적)
	F10	부모의 종교적 영향 아래 성장한 사람	
3	F12	고지식한 종교신념의 소유자	
	F13	타인의 종교생활에 좌우되는 사람	
4	F2	종교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	(목적적)
	F9	종교는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5	F4	신앙을 지적이고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추구적)
	F1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여 막연히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	(추구적)
	F8	종교적 생활과 사회생활을 타협하는 사람	
6	F11	종교가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길 바라는 사람	(수단적)
	F3	신앙이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단적)
	F7	종교적 삶과 일상생활의 괴리를 느끼는 사람	

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앙의 체험보다는 의 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부모나 환경의 영향에 의해 종교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태종교 우와 같은 사람들로 윤리적·도덕적 신앙인이라 부를 수 있다.

세번째 유형은 타인의 종교생활에 좌우되거나 간섭하 며 종교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매우 비판적인 사고와 편협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로 편의주의적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다.

네번째 유형은 종교는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신앙 없이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여 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신앙은 확고하여 타인에 의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흔히 매우 열심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 여 타인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배타적·신앙제일주의의 신앙인이라 볼 수 있겠다.

다섯번째 유형은 신앙을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추구하 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종교에 대해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연성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신앙의 깊은 체험은 부족하지만 신앙을 합리적 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로 합리적·개방적 신앙인이라 볼 수 있다.

여섯번째 유형은 종교는 자신의 욕구나 기대를 충족 시켜 주는 매개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느 님의 뜻을 찾고 생활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열의와 노력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아기적 신앙심의 소유자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은 기복적·욕구충족적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신앙유형과 종교상황 귀인간의 관계

평신도와 수도·성직자간의 종교상황 귀인의 차이

평신도와 수도·성직자 집단별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 인경향이 표 12에 나와 있다. 이 표에서 보면, 실존적 귀인의 경우 2의 문항에서는 평신도와 수도·성직자간의 귀인경향에 차이가 없었지만($t=.73, df=433, p<.05$) 1문항에서는 수도·성직자들이 평신도보다 실존적 귀인의 경향이 높고,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 생의 의미결여로 귀인하는 정도가 높았다($t=-1.73, df=433, p<.05$). 또한 마술주의 문항의 귀인에서 수도·성 직자들이 평신도보다 기원했던 문제의 해결이 기도보다 는 우연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마 술주의 1 $t=-2.23, df=433, p<.05$; 마술주의 2 $t=-1.48, df=433, .05<p<.10$). 이러한 결과는 수도·성 직자들은 평신도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원하고 바라는 문제의 해결이 개인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러 한 상황에서 노력없이 기도로 문제해결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결과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유형에 따른 종교상황 귀인의 차이

앞에서 분류한 여섯개 유형의 신앙인들의 종교상황에 대한 귀인의 차이를 각 응답자의 연령, 신앙경력, 신앙 심 수준과의 관련하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변인과의 관계에서 귀인의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 것은 이들 변인들이 신앙인들의 종교정향이나 신앙유형에 결정적 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신앙유형과 연령에 따른 차이

앞에서 분류한 여섯개 유형의 신앙인의 연령에 따라

표 11. 귀인의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평신도(n=220)	수도·성직자(n=215)	t(df=433)
실존적 문항 1	5.79 (3.52)	6.38 (3.59)	-1.73*
실존적 문항 2	5.54 (3.67)	5.28 (3.71)	0.73
마술주의 문항 1	8.15 (2.79)	8.72 (2.53)	-2.23*
마술주의 문항 2	6.17 (3.72)	6.69 (3.60)	-1.48Δ

주) 실존적 문항은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능력에 귀인하는 정도가 강하고 높을수록 실존적 경향이 강함을 나타 냄. 마술주의 문항은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우연의 일차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강하고 낮을수록 기도의 탓이 라고 귀인하는 정도가 강함을 나타냄.

* $p<.05$ Δ $.05<p<.10$

표 12. 신앙유형별, 연령별, 종교상황 귀인경향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유형		실존적 1	실존적 2	마술주의 1	마술주의 2
유형 1	연령 상	7.14(3.13)	4.64(3.61)	8.79(2.49)	6.43(3.86)
	연령 하	6.71(3.62)	6.18(3.97)	7.29(3.57)	5.07(3.72)
유형 2	연령 상	5.70(3.43)	4.49(3.23)	8.53(2.24)	7.20(3.41)
	연령 하	5.83(3.47)	5.74(3.80)	8.11(2.81)	4.77(6.59)
유형 3	연령 상	5.33(3.83)	6.33(3.70)	8.33(1.93)	6.67(3.13)
	연령 하	5.73(3.48)	5.49(3.56)	7.80(2.97)	6.43(3.51)
유형 4	연령 상	6.27(4.27)	5.58(4.17)	8.33(3.55)	7.17(3.95)
	연령 하	6.70(3.39)	6.16(3.75)	8.41(2.72)	6.35(3.63)
유형 5	연령 상	6.63(3.79)	4.31(3.81)	9.31(2.13)	8.03(3.21)
	연령 하	6.11(3.68)	5.29(3.65)	8.71(2.64)	6.71(3.73)
유형 6	연령 상	5.22(3.46)	6.44(3.81)	9.89(1.05)	6.11(4.23)
	연령 하	5.30(3.43)	5.20(3.45)	8.30(2.16)	7.80(3.46)

표 13. 유형(2,6)과 연령에 따른 마술주의(2)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연령 (A)	1	2.57	2.57	0.20
유형 (B)	1	16.08	16.08	1.27
연령×유형 (A×B)	1	70.20	70.20	5.52*
집단내	126	1601.22	12.71	

* $p < .05$

서 중속변인인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인들에 대한 변량 분석 검증을 하여 주효과와 상호작용의 유의미를 검토 하였다. 여기서 연령집단은 40세를 기준으로 하여 41 세 이상은 연령 상, 40세 이하는 연령 하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모든 가능한 짝에 있어서 각 귀인상황에서의 귀인경향을 2(유형)×2(연령)의 이원 변량분석을 해보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과는 신앙유형×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모든 가능한 분석결과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검출된 것 만 도표화하여 제시하기로 하였다. 표 12는 신앙유형 별, 연령별, 종교상황 귀인경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13에서 마술주의(2)는 '아파트당첨'에 대한 문항 으로서 기도 혹은 우연에 대한 귀인의 차이가 유형 2와 유형 6 집단에서 연령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2(윤리도

덕적 신앙인)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우연의 일치로 응답하였고, 유형 6(기복적 신앙인)은 연령이 높아짐 에 따라 우연의 일치로 돌리는 경향이 낮아지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2와 유형 6이 모두 '수단적' 정향을 띠고 있지만, 유형 2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것 을 하나님의 힘의 작용으로 믿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생 각하는 반면, 유형 6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하나님께 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시길 바라는 경향이 높아진다 고 해석할 수 있다.

(2)신앙유형과 신앙경력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여섯개 유형의 신앙인의 신앙경력에 따른 귀인양상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신앙경력에 세 례받은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980년도 이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을 신앙경력 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은 사람 을 신앙경력 저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모든 가능한 짝에 있어서 각 귀인상황에서의 귀인경향을

표 14. 신앙유형별, 신앙경력별, 종교상황 귀인경향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유형		실존적 1	실존적 2	마술주의 1	마술주의 2
유형 1	신앙경력 저	6.71(3.64)	6.81(4.01)	7.48(3.46)	4.86(3.71)
	신앙경력 고	7.00(3.30)	4.52(3.47)	8.10(3.18)	6.19(3.82)
유형 2	신앙경력 저	5.50(3.35)	4.50(3.36)	7.90(2.79)	5.10(3.46)
	신앙경력 고	5.96(3.50)	5.68(3.72)	8.52(2.46)	6.18(3.81)
유형 3	신앙경력 저	4.82(3.56)	5.43(3.73)	7.89(2.73)	7.00(3.44)
	신앙경력 고	6.16(3.55)	6.08(3.53)	8.08(2.58)	6.14(3.28)
유형 4	신앙경력 저	7.00(3.72)	5.00(3.72)	9.23(2.13)	5.62(3.69)
	신앙경력 고	6.46(3.55)	6.39(3.83)	8.08(3.10)	6.89(3.68)
유형 5	신앙경력 저	6.40(3.70)	5.30(3.82)	8.32(2.94)	5.82(3.81)
	신앙경력 고	6.15(3.72)	4.91(3.65)	9.15(2.24)	7.70(3.39)
유형 6	신앙경력 저	4.60(2.70)	7.60(3.97)	7.80(3.03)	7.70(4.18)
	신앙경력 고	5.50(3.61)	5.14(3.34)	9.50(1.09)	7.70(3.86)

표 15. 유형(1, 4)과 신앙경력에 따른 실존적 귀인(2)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신앙경력(A)	1	4.02	4.02	0.28
유형(B)	1	0.02	0.02	0.01
신앙경력×유형(A×B)	1	67.53	67.53	4.73*
집단내	87	1234.03	14.28	

* $p < .05$

2(신앙유형)×2(신앙경력)의 이원변량분석을 해보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과는 신앙유형×신앙경력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모든 가능한 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검출된 것만 도표화하여 제시하기로 하겠다. 표 14는 신앙유형별, 신앙경력, 종교상황 귀인경향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15에서 실존적 귀인(2)는 '성적부진의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서 성적부진에 대한 귀인에서 유형 1과 유형 4에서 연령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1(정통적 보수적 신앙인)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으로 보는 반면, 유형 4(배타적 신앙제일주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1은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으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유형 4는 확고한 신념이나 가치관이 결여될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6은 유형(4, 5)과 신앙경력에 따른 마술주의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이다. 마술주의 1은 탁구대회 예선 탈락의 문항으로서 기도 혹은 우연의 일치에 대한 귀인의 차가 유형 4와 유형 5에서 신앙경력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4(신앙제일주의 신앙인)는 신앙경력이 높을수록 기도에 원인을 돌리는 경향을 보이고 유형 5(합리적 신앙인)는 신앙경력이 높을수록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경향이 높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4는 자신의 신앙이 높아질수록 신앙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높고 유형 5는 신앙경력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사고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

표 16. 유형(4, 5)과 신앙경력에 따른 마술주의(1)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신앙경력 (A)	1	0.59	0.59	0.09
유형 (B)	1	0.05	0.05	0.01
신앙경력×유형 (A×B)	1	29.79	29.79	4.37*
집단내	186	1267.04	6.81	

* $p < .05$

표 17. 유형(3, 5)과 신앙경력에 따른 마술주의(2)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신앙경력 (A)	1	15.99	15.99	1.33
유형 (B)	1	0.35	0.35	0.03
신앙경력×유형 (A×B)	1	75.91	75.91	6.29*
집단내	201	2424.64	12.06	

* $p < .05$

다.

표 17에서는 유형 3과 유형 5가 신앙경력에 따라 마술주의(2)-아파트 분양당첨-에서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3(편의주의적 신앙)은 신앙경력이 높을수록 기도로 원인을 돌리는 반면, 유형 5는 신앙경력이 높을수록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3은 자신

의 행운이나 불행을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이나 별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유형 5는 신앙경력이 높을수록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신앙유형과 신앙심 수준에 따른 차이

이어서 여섯개의 유형의 신앙인의 신앙심 수준에 따른 귀인양상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신앙심 수준

표 18. 평신도의 신앙유형별, 신앙심수준별, 종교상황 귀인경향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유형		실존적 1	실존적 2	마술주의 1	마술주의 2
유형 1	신앙심수준 고	6.00(3.34)	3.50(2.88)	7.16(3.97)	7.33(4.03)
	신앙심수준 저	6.80(3.68)	6.71(3.77)	7.52(3.35)	5.14(3.94)
유형 2	신앙심수준 고	5.45(3.40)	4.12(3.31)	9.43(2.23)	6.04(3.99)
	신앙심수준 저	5.56(3.45)	4.90(3.50)	7.70(2.61)	6.02(3.59)
유형 3	신앙심수준 고	6.66(3.32)	7.50(3.14)	7.16(3.92)	7.00(3.28)
	신앙심수준 저	5.51(3.60)	6.20(3.62)	7.83(2.76)	6.20(3.53)
유형 4	신앙심수준 고	6.00(4.12)	5.60(3.64)	9.60(1.34)	4.00(4.00)
	신앙심수준 저	6.00(3.53)	5.85(3.95)	7.95(3.23)	6.65(3.66)
유형 5	신앙심수준 고	8.33(2.58)	4.83(4.53)	7.83(3.43)	8.00(3.68)
	신앙심수준 저	5.76(3.84)	5.16(3.80)	8.60(2.60)	5.90(3.80)
유형 6	신앙심수준 고	6.25(2.21)	5.50(3.69)	9.75(1.50)	6.25(4.92)
	신앙심수준 저	3.81(3.12)	7.00(3.57)	9.09(1.13)	7.45(3.64)

표 19. 평신도의 유형(1, 4)과 신앙심 정도에 따른 실존적 귀인(2)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신 앙 정 도 (A)	1	3.92	3.92	0.28
유 형 (B)	1	0.08	0.08	0.01
신앙정도×유형(A×B)	1	64.26	64.26	4.66*
집 단 내	47	647.65	13.77	

* $p < .05$

표 20. 평신도의 유형(1, 3)과 신앙심 정도에 따른 실존적 귀인(2)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신 앙 정 도 (A)	1	9.58	9.58	0.79
유 형 (B)	1	2.54	2.54	0.64
신앙정도×유형(A×B)	1	116.65	116.65	9.59**
집 단 내	71	875.86	13.16	

** $.01 < p < .05$

은 신앙교육이나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참여하는 수가 네개 이상인 사람은 신앙심 고, 세개 이하인 사람은 신앙심 저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모든 가능한 짝에 있어서 각 귀인상황에서의 귀인경향을 2(신앙유형)×2(신앙심)의 이원변량분석을 해보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과는 신앙유형×신앙심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모든 가능한 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검출된 것만 도표화하여 제시하기로 하겠다. 표 18은 평신도의 신앙유형별, 신앙심수준별, 종교상황 귀인경향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 19는 평신도의 유형 1과 유형 4가 신앙심 정도에 따라 실존적 귀인(2)-성적 부진에 대한 귀인-에서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1은 신앙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력이나 능력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유형 4는 신앙심 정도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1은 앞서 밝힌 대로 신앙심이 높을수록 하느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신념이 굳어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유형 4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신념이 굳어 인간의 협력이나 노력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0은 표 19와 마찬가지로이지만 평신도의 유형 1과

유형 3에서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1은 평신도의 신앙심 정도가 높을수록 노력이나 능력에 귀인하고 유형 3은 평신도의 신앙심 정도가 높을수록 실존적 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3은 열심한 신앙생활은 자신의 실존적 문제제기를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앙유형과 신앙태도간의 관계

평신도와 수도-성직자간의 신앙태도의 차이

표 21은 평신도와 수도-성직자의 신앙태도에 관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특징이 집단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합리화 3과 기도순서의 신앙태도에서 수도-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t = -2.24, df = 433; t = -3.18, df = 433$).

신앙유형에 따른 신앙태도의 차이

앞에서 분류한 여섯개 유형의 신앙인들의 종교상황에 대한 신앙태도의 차이를 각 응답자의 연령, 신앙경력, 신앙심 수준과의 관련하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변인과의 관계에서 신앙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 것은 이들 변인들이 신앙인들의 종교정향이나 신앙유형에 결정적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신앙유형과 연령에 따른 차이

표 21. 신앙태도의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평신도 (n=220)	수도-성직자 (n=215)	t(df=433)
합 리 화 1	2.16 (1.50)	1.96 (1.31)	1.48Δ
합 리 화 2	2.11 (1.52)	2.11 (1.49)	0.00
합 리 화 3	3.52 (1.86)	3.93 (1.95)	-2.23*
미 신	3.14 (1.91)	3.16 (1.83)	0.10
우상숭배	3.53 (2.19)	3.78 (2.18)	-1.19
기 복	4.29 (1.90)	4.10 (1.81)	1.07
기도순서	5.09 (1.41)	5.59 (1.27)	-3.18**

주) 평균이 클수록 더 허용적인 신앙태도를 나타냄

* $p < .05$ ** $p < .01$ Δ $.05 < p < .10$

앞에서 분류한 여섯개 유형의 신앙인의 집단과 연령에 따라서 종속변인인 종교적 상황에 대한 신앙태도에 대한 변량분석 검증을 하여 주효과와 상호작용의 유의미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들 중 주효과가 나타난 경우는 아주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것들만 도표화 하겠다. 표 22는 신앙유형별, 연령별, 종교상황 신앙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신앙태도에 대해서 유형 2와 유형 6에서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2는 연령이 높을수록 우상숭배는 안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유형 6은 연령이 높고 낮

음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2 (윤리 도덕적 신앙인)는 우상숭배는 종교적 이탈행위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저해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유형 6 (기복적 종교인)은 우상숭배에 대한 종교적 개념이 부족하여 종교적 이탈행위라도 허용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4는 유형 (1, 3)들이 연령에 따라 기도순서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1 (정통적 신앙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리상의 문제인 기도순서를 지키기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유형 3 (편의주의적 신앙인)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근소하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1은 교리를 지키려는

표 22. 신앙유형별, 연령별, 신앙태도의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유형		합리화 1	합리화 2	합리화 3	기도순서	미 신	우 상	기 복
유형 1	연령 상	2.14(1.56)	1.64(1.33)	3.57(1.86)	4.57(2.24)	2.64(2.20)	3.85(2.53)	3.92(1.85)
	연령 하	1.75(1.07)	2.17(1.72)	3.53(1.89)	5.60(0.83)	2.92(1.82)	3.53(2.11)	4.17(1.88)
유형 2	연령 상	2.41(1.64)	2.52(1.73)	3.97(1.81)	5.17(1.35)	2.69(1.82)	3.13(1.72)	4.36(1.95)
	연령 하	2.13(1.41)	2.42(1.70)	3.37(2.03)	5.75(0.86)	3.46(1.85)	3.35(1.98)	4.34(1.74)
유형 3	연령 상	2.12(1.39)	2.50(1.64)	3.54(1.79)	4.87(1.51)	3.25(1.84)	4.16(2.23)	4.70(1.62)
	연령 하	2.52(1.75)	2.19(1.32)	3.50(1.82)	5.33(1.22)	3.61(1.79)	4.42(2.28)	4.92(1.59)
유형 4	연령 상	2.25(1.60)	1.33(0.49)	3.75(2.09)	5.16(1.85)	2.83(1.74)	3.25(1.95)	4.08(1.62)
	연령 하	1.94(1.20)	1.56(0.89)	2.94(1.82)	5.45(1.28)	3.72(1.98)	3.48(2.04)	3.67(2.01)
유형 5	연령 상	1.62(1.03)	2.17(1.58)	4.31(2.09)	4.77(1.88)	2.40(1.64)	3.45(2.36)	3.65(1.93)
	연령 하	1.87(1.27)	1.82(1.26)	3.79(1.93)	5.51(1.25)	3.13(1.78)	3.72(2.36)	4.07(1.89)
유형 6	연령 상	2.63(1.85)	3.54(2.25)	4.09(1.64)	4.81(1.77)	3.36(2.24)	3.36(2.33)	4.18(2.04)
	연령 하	1.70(1.25)	1.70(0.94)	3.80(1.54)	5.10(1.28)	2.60(2.22)	3.40(2.36)	3.90(1.85)

표 23. 유형(2, 6)과 연령에 따른 신앙태도(우상)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연령 (A)	1	0.07	0.07	0.02
유형 (B)	1	1.29	1.29	0.37
연령×유형 (A×B)	1	14.65	14.65	4.24*
집단내	71	279.85	3.45	

* $p < .05$

표 24. 유형(1, 3)과 연령에 따른 기도순서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연령 (A)	1	22.85	22.85	11.96***
유형 (B)	1	3.27	3.27	1.71
연령×유형 (A×B)	1	7.60	7.60	3.98*
집단내	72	137.63	1.91	

* $p < .05$ *** $p < .01$

표 25. 유형(1, 4)과 연령에 따른 기도순서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연령 (A)	1	4.99	4.99	2.85
유형 (B)	1	7.37	7.37	4.20*
연령×유형 (A×B)	1	12.96	12.96	7.39**
집단내	47	82.39	1.75	

* $p < .05$ ** $.01 < p < .05$

표 26. 신앙유형별, 신앙경력별, 신앙태도의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유형	합리화 1	합리화 2	합리화 3	기도순서	미신	우상	기복	
유형 1	신앙경력 저	1.80(1.07)	1.61(1.35)	3.38(1.90)	5.14(1.45)	3.00(1.78)	3.47(2.44)	4.28(1.73)
	신앙경력 고	1.95(1.43)	2.38(1.77)	3.71(1.84)	5.38(1.59)	2.66(2.10)	3.80(2.06)	3.90(1.99)
유형 2	신앙경력 저	2.50(1.72)	2.50(1.82)	3.54(1.85)	5.71(0.80)	3.26(1.88)	3.40(1.95)	4.52(1.85)
	신앙경력 고	2.10(1.35)	2.44(1.64)	4.05(1.98)	5.40(1.26)	3.08(1.87)	3.38(1.85)	4.25(1.82)
유형 3	신앙경력 저	1.96(1.45)	2.28(1.48)	3.10(1.74)	5.46(1.17)	3.75(1.79)	3.89(2.19)	4.96(1.57)
	신앙경력 고	2.68(1.70)	2.31(1.43)	3.81(1.79)	4.94(1.43)	3.28(1.81)	4.65(2.26)	4.76(1.63)
유형 4	신앙경력 저	1.69(0.85)	1.92(1.32)	2.23(1.36)	5.30(1.31)	3.46(1.61)	4.15(1.61)	4.00(1.95)
	신앙경력 고	2.13(1.41)	1.36(0.48)	3.47(1.97)	5.41(1.48)	3.52(2.07)	3.16(1.81)	3.69(1.92)
유형 5	신앙경력 저	1.72(1.08)	1.88(1.49)	3.52(1.83)	5.50(1.35)	2.78(1.76)	3.70(2.41)	4.12(1.96)
	신앙경력 고	1.86(1.29)	1.92(1.27)	4.12(2.03)	5.25(1.50)	3.05(1.78)	3.64(2.34)	3.89(1.87)
유형 6	신앙경력 저	2.20(2.16)	1.60(0.54)	4.60(1.51)	5.80(0.83)	2.60(2.60)	5.40(2.19)	2.80(1.78)
	신앙경력 고	2.18(1.51)	3.00(2.12)	3.75(1.57)	4.68(1.62)	3.31(2.18)	2.75(1.98)	4.43(1.82)

경향을 보이는 것이고 유형 3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5는 유형 (1, 4)과 연령에 따른 기도순서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1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도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유형 4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도순서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으로 응답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1은 정통적 보수적 경향 때문에 교회법을 준수하려고 하고, 유형 4는 신앙제일주의 배타적 경향으로 인해 법이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신앙유형과 신앙경력에 따른 차이

모든 가능한 짝에 있어서 각 신앙태도상황에서의 신앙태도를 2(신앙유형)×2(신앙경력)의 이원변량분석을 해보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과는 신앙유형×신

앙경력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모든 가능한 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검출된 것만 도표화하여 제시하기로 하겠다. 표 26은 신앙유형별, 신앙경력별, 종교상황 신앙태도경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27과 표 28은 유형 (1, 3)들이 신앙경력에 따라 합리화(2)-종교에 따른 부하직원 편애-와 합리화(3)-하느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는 신념-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드러났다. 이 결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1은 신앙경력이 높아질수록 합리화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모르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반면, 유형 3은 신앙경력과 무관하게 모르겠다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해석상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합리화 문항에 결합이 있는지 아니면 유형 3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

표 27. 유형(1, 3)과 신앙경력에 따른 합리화(2)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신 앙 경 력 (A)	1	4.16	4.16	2.20
유 형 (B)	1	1.57	1.57	0.83
신앙경력×유형(A×B)	1	9.71	9.71	5.14*
집 단 내	72	136.05	1.89	

* $p < .05$

표 28. 유형(1, 3)과 신앙경력에 따른 합리화(3)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신 앙 경 력 (A)	1	13.98	13.98	1.04
유 형 (B)	1	0.01	0.01	0.01
신앙경력×유형(A×B)	1	60.95	60.95	4.51*
집 단 내	104	1405.03	13.51	

* $p < .05$

표 29. 유형(1, 4)과 신앙경력에 따른 합리화(2)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신 앙 경 력 (A)	1	1.29	1.29	1.00
유 형 (B)	1	0.38	0.38	0.29
신앙경력×유형(A×B)	1	10.82	10.82	8.39**
집 단 내	47	60.64	1.29	

** $.01 < p < .05$

졌다.

표 29와 표 30은 유형 1과 유형 4 그리고 유형 1과 유형 2 사이에 합리화(2)와 합리화(3)과의 신앙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 결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1은 신앙경력이 높을수록 합리화(2)와 합리화(3)에서 보다 허용적인 신앙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형 3은 합리화(2)는 신앙경력에 대한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유형 2는 합리화(3)에 대해 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1이 정통적이고 보수적 경향을 보일지라도 시대와 사회환경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유형 2와 유형 4는 신앙을 생활화 하는데 신앙과 사회생활을 무관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신앙태도와 신앙심 수준에 따른 차이

표 30. 유형(1, 2)과 신앙경력에 따른 합리화(3)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신앙경력 (A)	1	9.87	9.87	0.75
유형 (B)	1	10.71	10.71	0.81
신앙경력×유형(A×B)	1	87.76	87.76	6.68**
집단내	149	1958.92	13.15	

** .01 < p < .05

표 31. 평신도의 신앙유형별, 신앙심수준별, 신앙태도의 평균(괄호 안은 표준편차)

유형	합리화 1	합리화 2	합리화 3	기도순서	미신	신앙	우상	기복
유형 1	신앙수준 고	2.16(0.98)	1.66(0.81)	4.66(1.63)	4.50(2.42)	2.66(1.50)	3.00(2.09)	5.00(2.44)
	신앙수준 저	1.80(1.28)	1.71(1.48)	3.09(1.86)	4.90(1.41)	2.66(1.82)	3.38(2.41)	3.66(1.71)
유형 2	신앙수준 고	2.28(1.69)	1.80(1.50)	3.52(1.96)	5.32(1.34)	2.72(1.98)	2.60(1.60)	4.56(2.04)
	신앙수준 저	2.43(1.59)	2.54(1.71)	3.54(1.81)	5.45(1.02)	3.52(1.77)	3.79(1.87)	4.18(1.76)
유형 3	신앙수준 고	1.50(0.54)	2.33(1.86)	3.50(2.07)	4.83(1.60)	2.16(1.60)	3.16(2.04)	4.16(1.83)
	신앙수준 저	2.23(1.58)	2.18(1.38)	3.20(1.71)	5.02(1.37)	3.83(1.78)	4.51(2.24)	5.06(1.51)
유형 4	신앙수준 고	1.80(0.44)	1.60(0.54)	2.20(1.64)	5.20(1.92)	3.40(1.67)	3.60(2.79)	2.40(1.67)
	신앙수준 저	1.95(1.14)	1.65(1.13)	3.15(1.89)	5.35(1.08)	4.05(2.23)	4.00(2.17)	4.35(1.87)
유형 5	신앙수준 고	1.66(1.63)	1.66(1.63)	3.66(2.33)	4.83(2.22)	2.00(2.00)	2.66(2.33)	4.00(2.28)
	신앙수준 저	2.16(1.64)	2.30(1.64)	4.00(2.00)	4.76(1.67)	2.13(1.47)	2.60(2.20)	3.76(2.12)
유형 6	신앙수준 고	1.75(0.50)	2.50(2.38)	4.50(1.73)	5.25(0.50)	2.00(2.00)	3.25(0.50)	4.00(2.44)
	신앙수준 저	2.36(1.96)	2.27(1.48)	4.18(1.53)	4.81(1.77)	3.27(2.14)	3.72(2.61)	4.18(1.88)

표 32. 평신도의 유형(1, 2)과 신앙심 정도에 따른 합리화(2)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신앙정도 (A)	1	1.81	1.81	0.75
유형 (B)	1	6.84	6.84	2.83
신앙정도×유형(A×B)	1	9.99	9.99	4.13*
집단내	93	225.10	2.42	

* p < .05

신앙심 정도나 사도적 활동 정도는 수도자나 성직자에게는 의미를 붙일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평신도의 군집집단들간의 차이검증을 한 것이다. 모든 가능한 짝에 있어서 각 신앙태도상황에서의 신앙태도를 2(신앙유형) \times 2(신앙심)의 이원변량분석을 해보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과는 신앙유형 \times 신앙심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모든 가능한 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검출된 것만 도표화하여 제시하기로 하겠다. 표 31은 신앙유형별, 신앙심별, 종교상황 신앙태도경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32는 평신도의 유형 1과 유형 2에서 신앙생활을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합리화하는 신앙태도에 대해서는 신앙심 정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형 1(정통적 보수적 신앙인)은 신앙심 정도에 관계없이 합리화에 대한 허용도가 낮은 반면, 유형 2(우리도덕적 신앙인)는 신앙심 정도가 높을수록 합리화에 대한 허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유형 2는 신앙생활에 적극적이고 신앙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하느님께 보다 더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헌신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경험적, 실증적 접근에는 많은 제한성이 있는 종교활동 및 신앙심에 대한 연구이지만 신앙인이 갖추어야 되는 바람직하고 성숙한 종교에 대해 학문적으로 고찰하여 인간의 종교행동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연구에 대한 접근적 방략으로서, 종교정향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여 종교적으로 지향하는 신앙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종교정향대로 군집화하여 구분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이 가장 주된 연구 주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종교정향이 달라서 서로 다르게 군집화된 유형집단들간에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인이나 신앙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함으로써 과연 종교정향적 유형이 다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 두번째 연구 주제이었다.

첫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Batson 등

(1982)이나 김동기(1992)의 연구에서 보다 정향의 구분이 더 명백해져서 문항의 요인분석 및 조사대상자의 군집화에서 요인간 혹은 특성간 변별력이 높아진 점이다. 이는 수도자 성직자가 정향척도 및 귀인-태도척도에 응답한 내용이 일반 평신도보다 훨씬 더 깊은 종교 지식이나 신앙심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Batson(1982)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정통교리척도를 제외시킨 것도 그 이유의 일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종교정향척도들간의 상관관계의 계수가 기존연구에서 보다 '내적-외적' 구분이 뚜렷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llport(1967)의 '외면적정향'과 Batson(1982)의 '외적정향'의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나 Allport와 Batson 척도의 문항성질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정향을 재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종교정향에 대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에서 요인점수와 부하량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Batson(1982) 방식의 정향대로 하면 '목적적' 정향에는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느끼는 사람(F6)' '종교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F2)'이 관련되어 있지만 통계적 의미는 이 두 요인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목적적' 정향을 지향하는 신앙태도에서도 명칭을 다르게 붙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예컨대, F6은 '참된 영성에서의 목적'(하느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라 하고 F2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맹목적일 만큼 신앙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경향)이라는 방식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명칭의 세분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다른 차원의 연구에서 가능할 것이다. 또한 Batson방식의 '수단적' 정향에는 '신앙이 개인적 삶이나 사회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F3)'과 '종교가 자신의 개인적 욕구도 충족시켜 주길 바라는 사람(F11)'의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이 정향에서도 종교를 '생활의 유익'의 '수준과 개인욕구충족'의 수준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명칭의 뜻이 같으나 다른 것이냐는 앞선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연구의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Batson의 '추구적' 정향에 해당되는 요인명칭에는 '신앙을 지적이고, 외적으로 추구하는 사람(F4)'과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여 막연히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F1)'이 포함되고 있다. 이 정향을 Batso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종교의 정신을 생활에 응용하여 사회봉사, 도움행동실천과 같은 이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종교지향으로서 실생

활에 가장 강하게 관련지을 수 있는 실천적 정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향의 지향자가 종교심이 깊으나 얕으나 하는 문제도 과제로 남을 수 있다고 본다. 환언하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Batson이나 김동기 연구 분석보다 좀 더 발전적인 종교정향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정향구분에서 사용된 요인 부하량으로 연구대상자 집단을 구별한 군집분석 결과를 보면 여섯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가설대로 요인의 특성에 따라 집단유형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유형의 특성에 따라 요인들 모두를 정확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통계적 의미로는 최소한 한개씩 이상의 요인-유형의 짝짓기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요인의 명칭부여 과정에서 그러했듯이 유형도 '목적적' '수단적' '추구적' 정향으로 구분해 볼 때 두개 이상의 요인집단이 각각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유형의 성질 분석이나 명칭도 추후 연구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유형 구분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요인-유형은 F12에 의한 유형 3이다. 즉 '고지식한 종교신념의 소유자'이다. 이 유형은 요인이 한개일 뿐만 아니라 원문 문항의 해석곤란성에 의한 것인지 혹은 특성에 의한 것인지 의미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본 연구의 두번째로 중요한 연구주제로서 종교적 상황에 대한 귀인과 신앙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유형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연령이나 신앙경력을 주효과 변인으로 하여 유형집단간 상호작용을 검증한 전반적인 경향은 유형 1과 유형 4에서 가장 많은 종속변인들에 대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유형 1과 유형 3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형 2와 유형 6, 유형 3과 유형 5, 유형 1과 유형 2, 유형 4와 유형 5의 집단간에서 1-2개의 귀인이나 태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이 결과들에서 특이한 것은 Batson이 의미하는 정향의 성질을 가진 유형집단간에서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Batson에 의해 분류되는 정향의 성질이 같은 집단(예, '목적적' 정향의 의미를 가진 두 유형집단)에서도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차를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요인-유형 구분이 더 명료하게 변별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김동기(1991)의 연구에서는 군집화한 유형의 수가 여덟개 이었고, 그 유형들의 정향을 '목적적' '수단적' '추구적'으로 각각 관련지어, 각 유형에 대한 명

칭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검증을 위하여 t 검증을 하였지만 '수단적(외적)정향×목적적(내적)정향', '목적적(내적)정향×추구적(상호작용적)정향'에서는 차의 의미가 없었고, '수단적(외적)정향×추구적(상호작용적)정향'의 t 검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군집화하여 세분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변량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상호작용들이 많은 것은 요인-유형 구분이 변별력있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집단에서 가장 많은 종속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유형은 유형 1과 유형 4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느끼는 사람'과 '종교를 자신의 삶의 목적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령이나 신앙경력의 차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 사고에서 합리화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차이는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느끼는 사람(유형 1)'과 '고지식한 종교신념의 소유자(유형 3)'에서 가장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마술주의에 대하여 가장 많은 차이는 유형 3과 유형 5 (신앙을 지적이고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효과의 변인 중에서 신앙경력이 연령보다 더 많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종속변인은 합리화이고, 그 다음이 마술주의이다. 이는 신앙경력이 많고 적음은 합리화나 마술주의에서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는 종교적 신념은 기도순서에서 견해 차이가 크게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평신도의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앙정도에서 귀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고, 그 유형 집단을 전체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형 6과 유형 4, 그리고 유형 1과 유형 3 사이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과이다. 특이한 것은 평신도 집단내에서 사도직 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데에 대한 차이는 종교적 상황귀인과 신앙태도 어느 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수도-성직자와 평신도간의 종속변인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독립변인은 신앙경력과 연령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교회내에서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신분이 달라 종교적 신념이나 견해의 차이를 얻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상황조건에 맞는 인과적 상황에 의한 상황처치나 분석이라기 보다는 추단적으로 조사내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경향성을 측정할 정도에서 결과의 해석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도 천주교의 수도-성직자와 평신도에 국한되어 있어 기독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보아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본 연구의 함축적인 목적은 종교정향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심과 거짓된 신앙심의 구별에 있다. 신앙심 자체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기에 참되다거나 거짓되다고 극단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앙심이 인간의 이성과 상치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신앙심이 인간의 사회생활이나 인간 성숙이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Allport가 주장한 인간의 성숙과 참된 종교심의 성숙은 맥을 같이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앙인의 유형을 여섯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질문지의 응답자의 반이 수도자 성직자이었기에 정통적인 신앙인이 42명(9%), 실존적 문제를 신앙안에서 해결하려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신앙인이 143명(32%)를 차지했다. 반면 윤리도덕적 신앙인이 113명(25%), 편의주의적 신앙인이 67명(15%), 배타적이고 신앙제일주의는 67명(11%), 기복적 신앙인이 21명(4%)을 차지했다. 이같은 비율에 비추어 보면 천주교회의 신앙인들이 광적이거나 맹목적인 신앙인들이 소수이지만, 신앙체계의 부족과 신앙과 사회생활과는 무관하게 종교를 도덕적으로 신봉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통계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천주교회내의 성서연구나 신앙교육 그리고 신앙에 대한 참된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피정과 같은 체험과정이 무척이나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요즘 천주교회내에서도 교회의 증산증화나 건물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소리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인들의 사회적 의무를 촉구하는 경향이 높다. 이같은 경향은 참된 종교인의 모습을 바라는 열망이라고 생각된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교회의 사명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보다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정화와 더불어 사회의 고통과 희망을 함께하는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Allport는 성

숙한 종교인을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종교인, 자신의 사회적 의무를 다한 뒤 사회의 분열을 방지하고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종교인, 폐쇄적이고 단절된 느낌의 종교인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는 종교인,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는 종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날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 사회에 종교인들의 사명은 보다 더 구체적인 삶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통해 종교내의 쇄신과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본 연구에는 많은 문제와 제한점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첫째로는 신앙인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독립변인이 두가지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앙인의 분류는 성별, 연령, 가정환경, 인생의 실존적 체험(예컨대, 병, 부모형제의 사별 체험, 시련 등)의 유무 등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동시에 연구대상도 극히 한정된 숫자와 한정된 지역에 의해 표집된 것이기에 천주교인 전체를 대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가 보다 많은 연구대상이 천주교인을 대표할 수 있고 독립변인도 다양하게 채택하여 연구되기를 기원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동기(1993). 종교유무, 종교정향에 따른 귀인의 차 및 성격과의 상관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 7-2, 34-45.
- 김동기(1992). Allport과 Batson의 종교정향척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평. 논문집 제23집. 강남대학교 출판부
- 김동기(1991). 종교정향과 사회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의 연구: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62, 22-31.
- 로마 교황청. 제2차 공의회 문헌(1977). 서울: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오경환(1979). 종교 사회학. 서울:서광사
- 윤주병(1986). 종교 심리학. 서울:서광사
- 조공호(1986).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행동과학 연구. 제 8 권. 197-223.
- 최창무(1982). 이상숭배와 미신. 신학전망 80호. 광

주 : 분도인쇄소

- Allport, G.W. (1950).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ew York : MacMillan.
- Allport, G.W., & Ross, J.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Batson, C.D., & Ventis, W.L. (1982). *The religious experience*.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Donahue, M.J. (1985).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 The empirical research.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418-423.
- Geertz, C. (1975).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London : Hutchinson.
- Kahoe, R.D. (1974). Personality and achievement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812-818.
- Kahoe, R.D. (1985). The develop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408-412.
- Kelley, H.H., & Michela, J.L. (1980).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s of Psychology*, 31, 457-501.
- Moehle, D. (1983). Cognitive Dimensions of religious experi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122-145.
- Proudfoot, W., & Shaver, P. (1975). Attribution theory and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4, 317-330.
- Rosenberg, M. (1956). Cognitive structure and attitude affec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3, 367-372.
- Shaver, K.G. (1975). *An introduction to attribution processes*. Cambridge Winthrop.
- Wong, P.T.P. (1991). Existential versus causal attribution : The social perceiver as philosopher. In Zelen, S.L. (Ed.). *New models, new extensions of attribution theory*. New York : Springer-Verlag.

A Study of the Types of Religious Attitude by Religious Orientation

Seung-Chi Baek and Dong-Gi Kim

Sogang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ous religious orientations of those who believe in Catholicism and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mong the types in the attribution for religious situation and in the religious attitude.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for the present study, was 453 who consist of 62 Roman Catholics priests, 153 Roman Catholics sisters and 220 Roman Catholics Christians.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proceeded, first, by taking the religious orientation scale testing for all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accordance with Batson's method and giving them new factor analyzed orientation questionnaires. Next, the participants in the survey were regrouped by the types how they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and each type from the regrouping was identified by the clustering analysis. Finally,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among the types of new grouping were investigated by analysis of variance. The high lights of the present study is (1) to have priests and sisters who together take almost 50% of all the participants and it makes the present factor-type classification clearer than the performed in Batson's study, (2) to identify 6 types of religious orientation ('Orthodoxy', 'Ethics', 'Flexibility', 'Worship', 'Rationale', 'Wish'), which are more than the Batson's 3 types ('end', 'means', 'quest') employed, (3) to find that the birth age and baptism age have different interactional effects in the attribution of the religious situation and also in the religious attitude, (4) to learn that it is the birth age which shows the interactional effect more sensitively than the other in the religious attitude for different orders of pray, while (5) to conform that it is the baptism age which shows the interactional effect more sensitively in the attribution of the religious situation between rationalism and magism, and finally (6) to assure that, to those Catholic Christians, the interactive effect shows clearly by their religious attitudes, not by the extent of their apostolic activities.